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김포 서울 편입 이슈

갑론을박 없이 샘솟는 장난끼~

2023. 11. 13

지난 10월 30일, 여론 발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위나 의도나 실질적인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 연일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니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이 문득 궁금해졌다. (이 이슈가 아주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커뮤니티 등 SNS 채널에서 회자되는 사회적 이슈의 파급력을 진단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가늠의 잣대를 만든다

1. SNS 언급량(정보량)이 분석 할 만큼 **충분히 많은가?**
2. 여론이 언론의 보도량을 **따라가는가, 따로가는가?**
3. 전체 언급 중 기사 스크랩과 **자발적 의견 비중**은 어떠한가?
4. 자발적 언급 내용의 Tone & Manner, 즉 **뉘앙스**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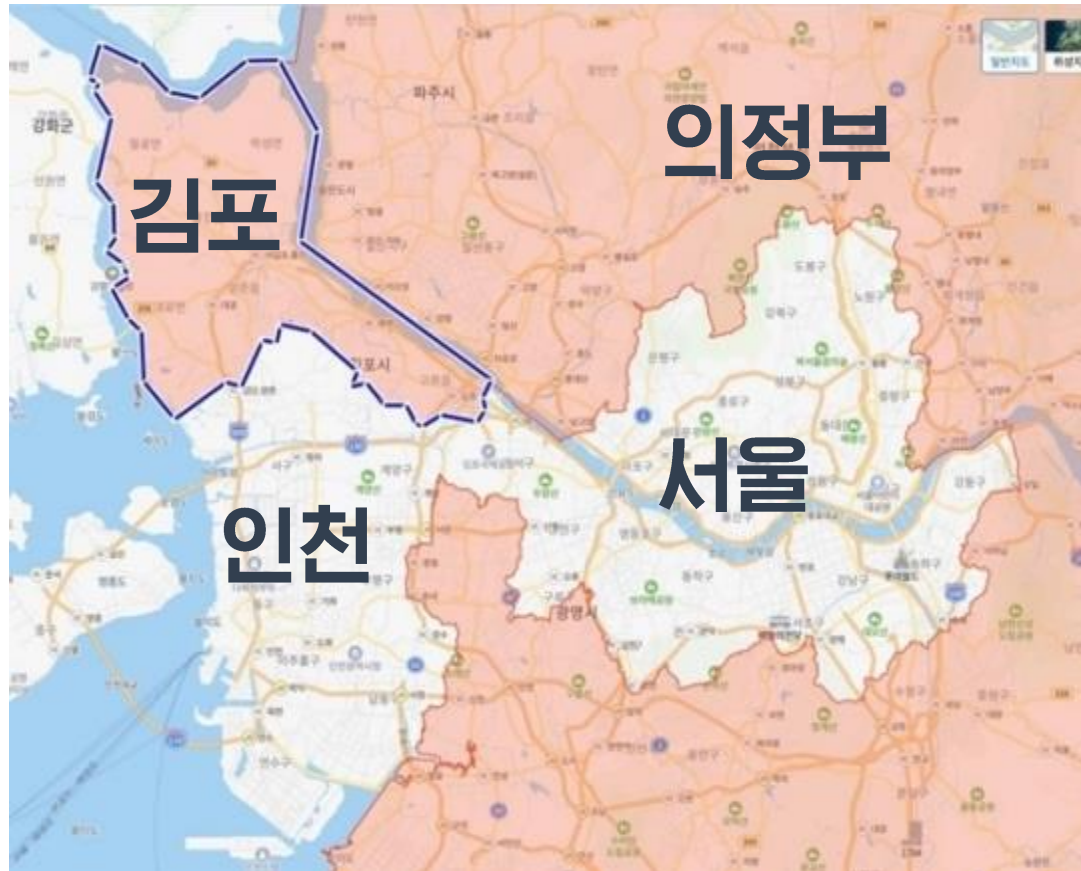
이어지는 내용들은 대체로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니 해당 이슈가 얼마나 논쟁이 되고 있고, 또 파급력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이슈의 시작

2023년 10월 30일, 서울 편입 공론화 추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론화 추진

입력 2023.10.30. 오전 10:47 수정 2023.10.30. 오전 11:14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대시민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도심·농촌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대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횡수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중에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준치**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계획도 마련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조만간 김 시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

출처 : 한국경제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31585>)

하루 전, 10월 29일, 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장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김동연, 尹에 경기북부특별도 건의 "이번이 야말로 추진할 적기"

입력 2023.10.29. 오후 6:12

- 중앙지방협력회에 참석, 대통령에 주민투표 요청
- 늦어도 내년 2월 초 이전으로 투표 시기 건의
-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도내 인구감소·접경지 포함 및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감으로 상향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할 적기"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는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늦어도 내년 2월 초 안에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TF를 구성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 GRDP 1.11%, 대한민국 GDP 0.31%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이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경제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31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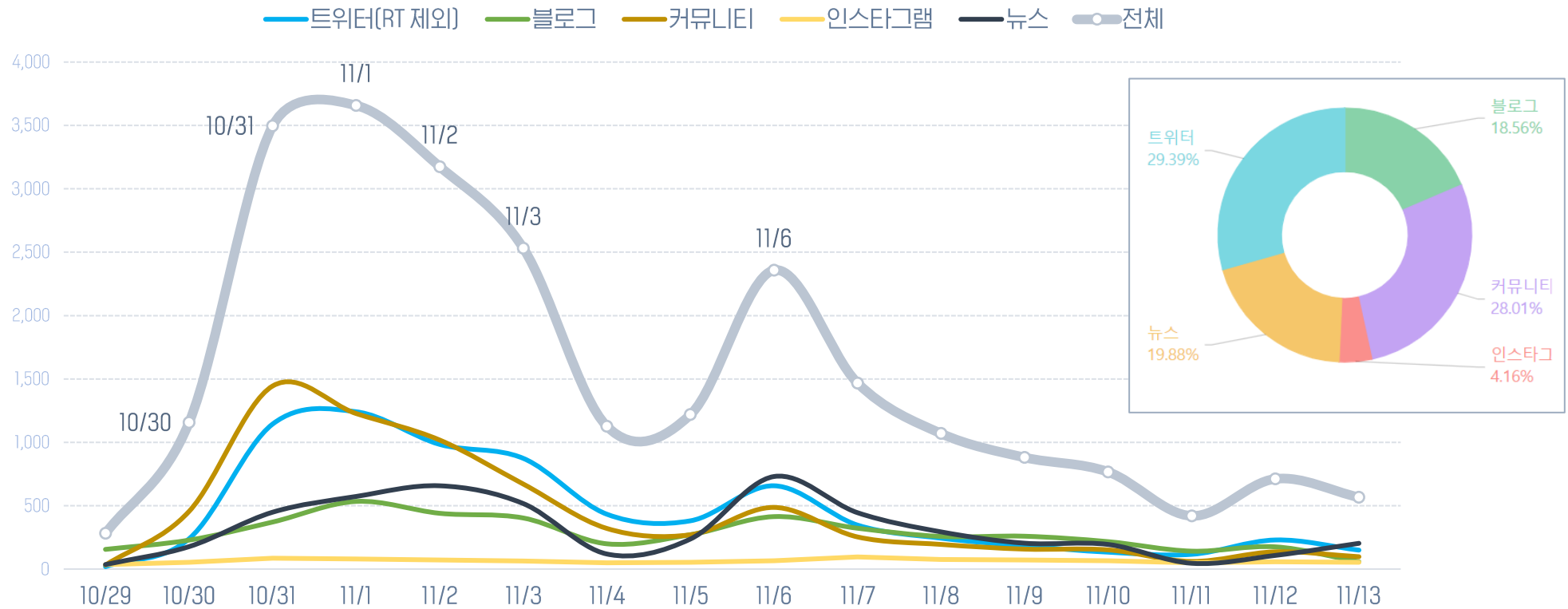


언론과 여론의 태도 비교

SNS에서는 발표 후 나흘 간 크게 회자

트위터와 커뮤니티 채널 비중이 57.4% / 언론 기사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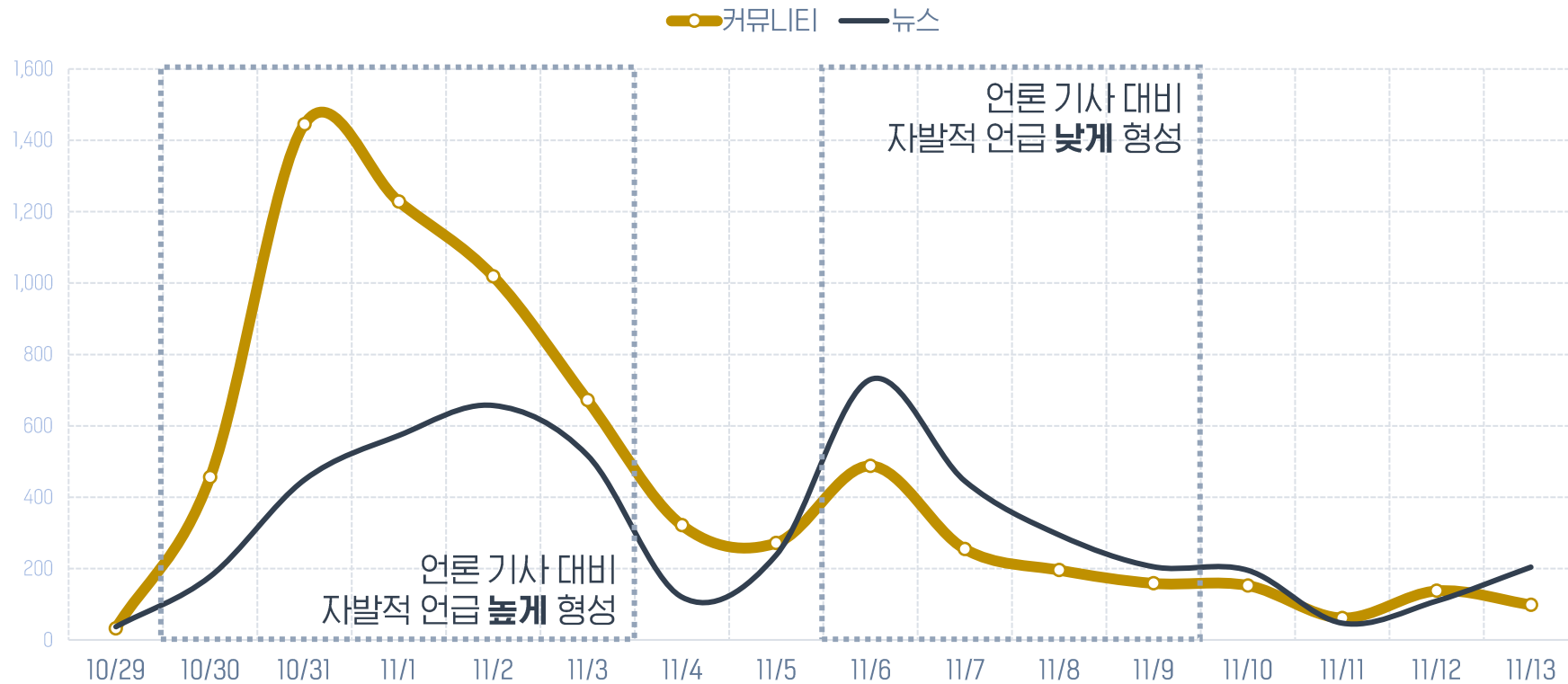
2023. 10. 29 [일] ~ 11. 13 [월] SNS 상에서의 '김포' & '서울' 동반 언급 추이 (단위:건)



커뮤니티와 언론 채널 추이 비교 : 언론과 다소 무관한 움직임

두 개 추이가 언뜻 비례해 보이거나 서로 증폭 시점이 다르게 형성, 11/6 이후에는 언론 정보량이 상회하기도

2023. 10. 29 (일) ~ 11. 13 (월) 커뮤니티 Vs. 뉴스 '김포' & '서울' 동반 언급 추이 (단위:건)



커뮤니티와 언론 채널 연관어 비교 : 서로 다른 얘기 중..

언론에서는 다양한 키워드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비해,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편입' 언급 압도적

뉴스 채널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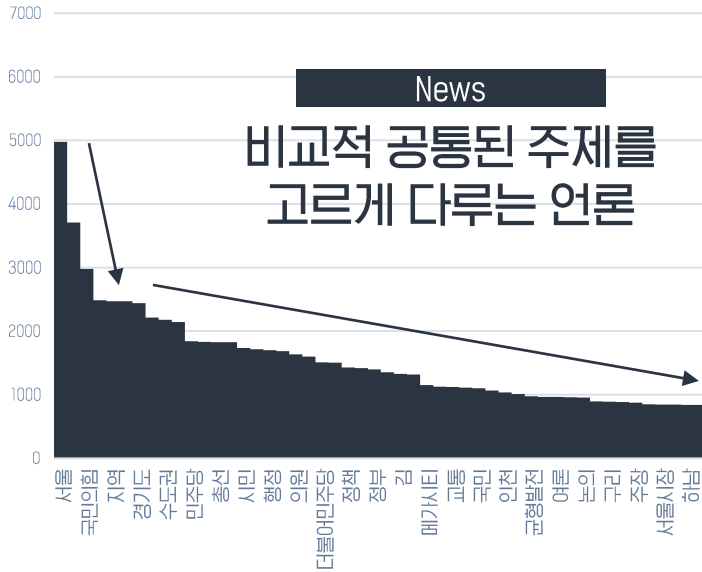


커뮤니티 채널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순위	뉴스 연관어	언급량
1	서울	4976
2	편입	3710
3	국민의힘	2978
4	경기	2484
5	지역	2470
6	김포시	2469
7	경기도	2440
8	대표	2212
9	수도권	2179
10	서울시	2144
11	민주당	1839
12	도시	1831
13	총선	1826
14	입장	1824
15	시민	1733
16	주민	1717
17	행정	1701
18	여당	1687
19	의원	1633
20	시장	1598
21	더불어민주당	1507
22	국회	1502
23	정책	1430
24	선거	1418
25	정부	1400
26	문제	1355
27	김	1329
28	지방	1320
29	메가시티	1150
30	김기현	1126
31	교통	1121
32	구역	1110
33	국민	1103
34	의견	1064
35	인천	1037
36	위원장	1012
37	균형발전	973
38	경제	966
39	여론	964
40	이슈	959

뉴스 연관어 별 언급량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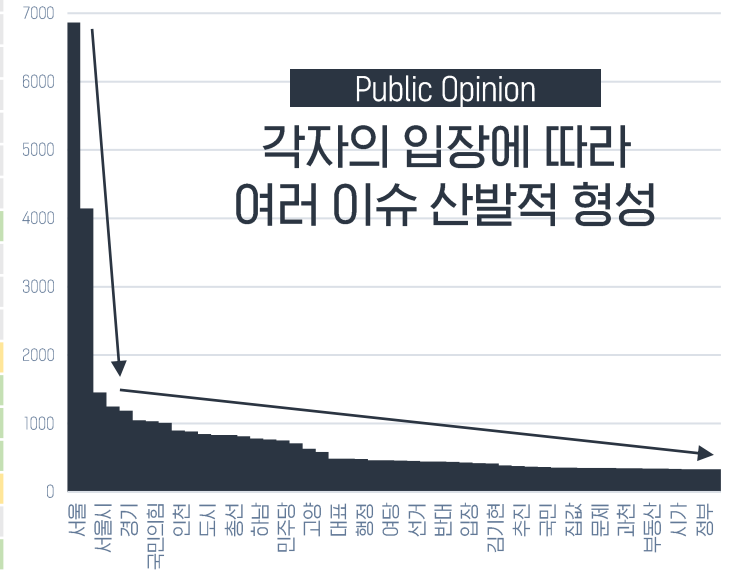
언급량 기준 키워드를 정렬해 보면
수치가 비교적 일정하게 감소

비교적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고르게 다루고 있다는 의미

주요 키워드를 보면
주로 정당, 선거, 행정 등

순위	커뮤니티 연관어	언급량
1	서울	6867
2	편입	4147
3	서울시	1455
4	경기도	1247
5	경기	1189
6	지역	1048
7	국민의힘	1032
8	시민	1010
9	인천	899
10	김포시	885
11	도시	848
12	시장	833
13	총선	830
14	구리	815
15	하남	780
16	광명	766
17	민주당	752
18	수도권	710
19	고양	633
20	주민	585
21	대표	487
22	정치	485
23	행정	481
24	공유	464
25	여당	462
26	여론	459
27	선거	455
28	쓰레기	445
29	반대	444
30	부천	437
31	입장	430
32	이슈	422
33	김기현	415
34	국힘	386
35	추진	380
36	뉴스	369
37	국민	365
38	성남	357
39	집값	354
40	정책	351

커뮤니티 연관어 별 언급량 순위



서울, 서울시, 편입 등
최상위 키워드 언급이 압도적인 반면
나머지 키워드의 언급량은 미미한 수준

해당 이슈 기반 언급 내용이
모아지지 않고 산발적이라는 의미

언론이 좁고 깊게 다룬다면
여론은 넓고 얇게 다루는 양상

키워드 역시 언론에서와 달리
기타 지역을 언급하는 내용들 다수 포착

강남 김병수 쓰레기 정책 교통 민주 다 의정부
기자 부산 쓰레기 뉴스 민 주 당 출 처
유정복 지방 과 명 이 노 김동연 생활 권 정부
인 구 한 강 과 영 인 천 개발 구 역 천 안 강 서 구 수 도 권
한 강 과 영 인 천 지도 아 닌 유 스 도 권
대 표 포 천 미 시 미 하나
위원회 대 표 미 시 미 하나
주 과 영 인 천 하나
고 과 영 인 천 하나
대 체 로 다 양 한 지 역 이 언 급
그 외 부 동 산 & 집 값 이 슈 화
중 선 선 거
기 포 시 지 역 중 선 선 거
강 화 연 구 부
계 획 화 성 대 전 아 유 목 한 양 평 신 도 시
안 김 포 시 지 역 아 유 목 한 양 평 신 도 시
부 동 산 오 소 지하 철 울 산 과 영 인 천 아 유 목 한 양 평 신 도 시
대 구 오 소 지하 철 울 산 과 영 인 천 아 유 목 한 양 평 신 도 시
서 울 시 민 과 천 반 대 국 민 공 유 집 값 문 제 시 가 경 제 위 원 장
5 호 선

“광명이 서울 편입 주장하면 이해라도 하지”

“광명 과천 구리 하남은 서울편입 타당성이 있는데”

“검단이 김포에 편입후 서울편입 하길 희망합니다”

“구리는 솔직히 이제 서울로 넣어주자”

“평택 송탄도 서울로 편입시켜달라~~”

“강촌 김포도 서울시 되는데.. ㅋ
gtx 다니면 서울 20분대 진입하니 동탄도 서울편입”

“와~~~제가 즐지에 서울에 집 1채 생기겠어요”

“시흥시도 서울시로 편입 요청해야 합니다”

“김포 서울 편입하면 서울 집값좀 내리려나요?”

“파주에서 다리만 건너면 서울이네요. ㅋㅋㅋㅋ”

“만약에 김포가 서울 된다치면 바로 집값 오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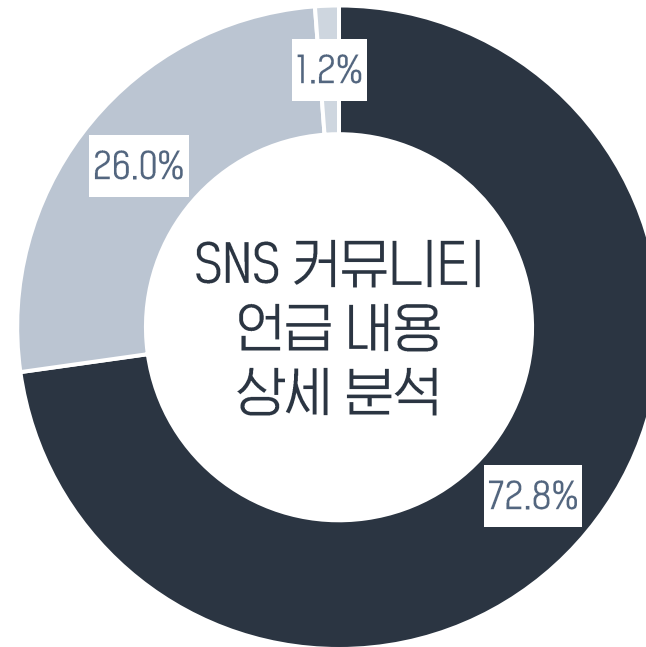
“김포가 인서울,김포구 되면, 집값 30프로 떡상”



자발적 여론 반응 상세

커뮤니티 언급 내용 중 자발적 언급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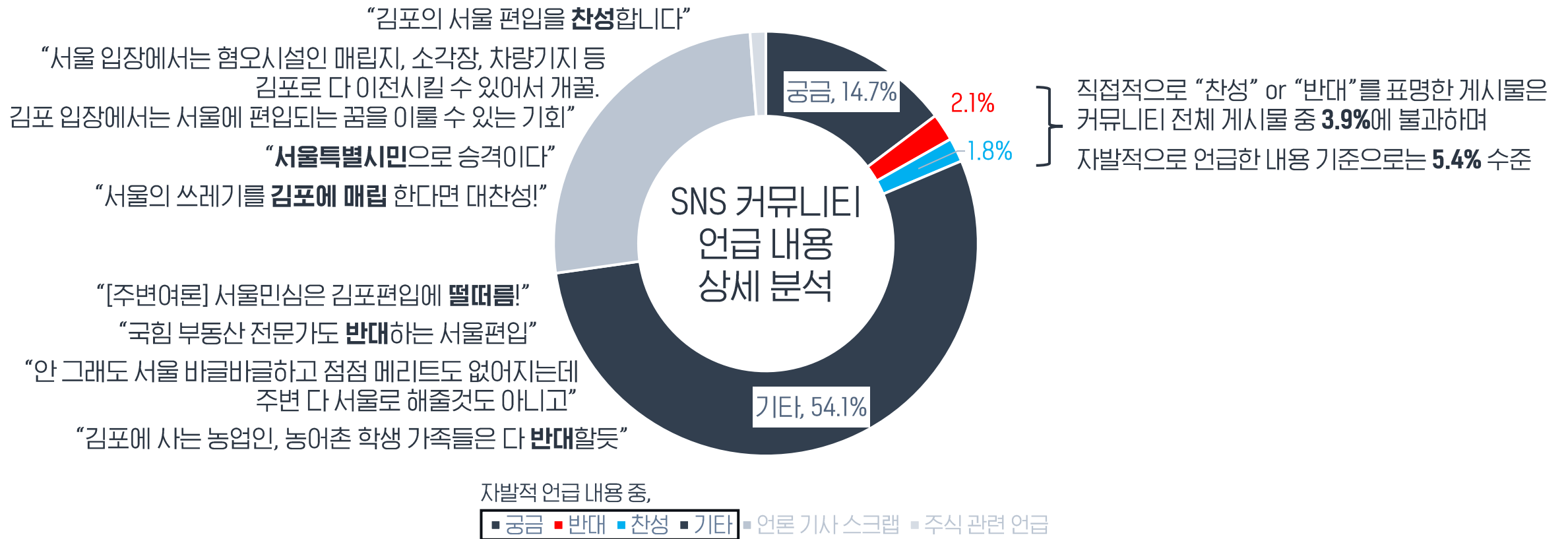
언론 스크랩은 26%, 언론에 주목하기 보다 하고싶은 얘기를 하는 중



- 자발적 언급
- 언론 기사 스크랩
- 주식 관련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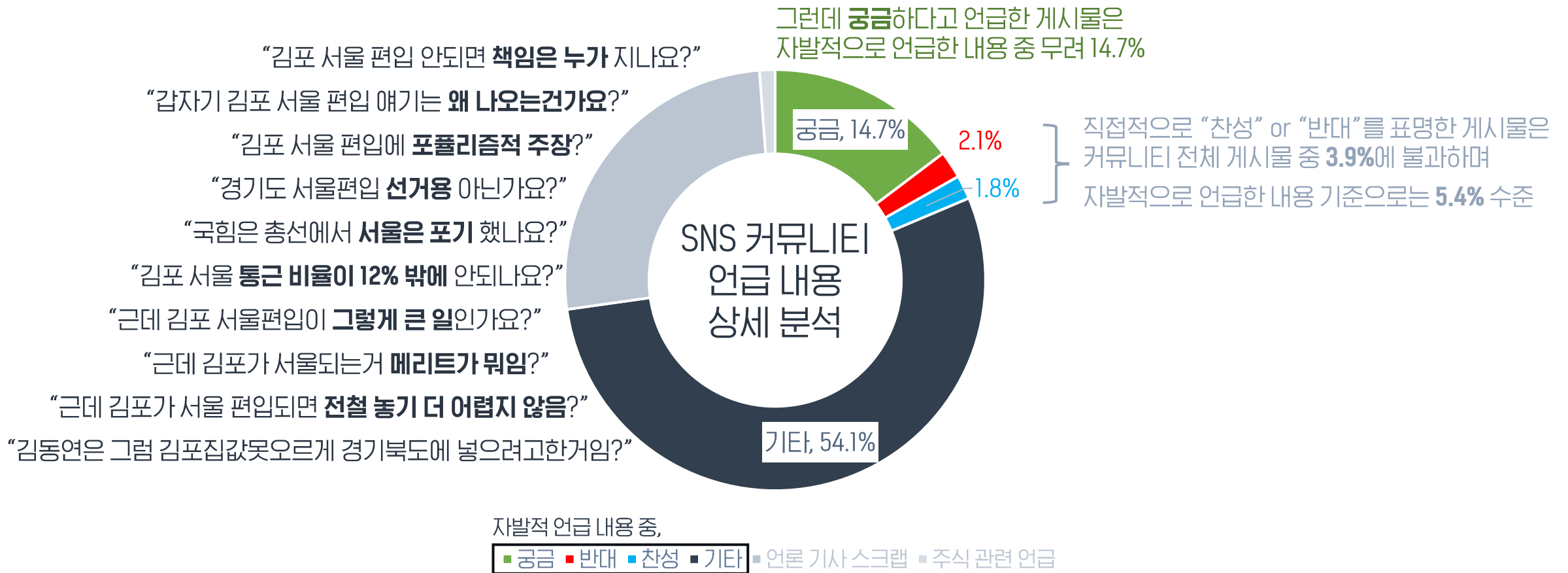
자발적 언급 중 직접적 찬반 표명은 3.9%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할만큼의 주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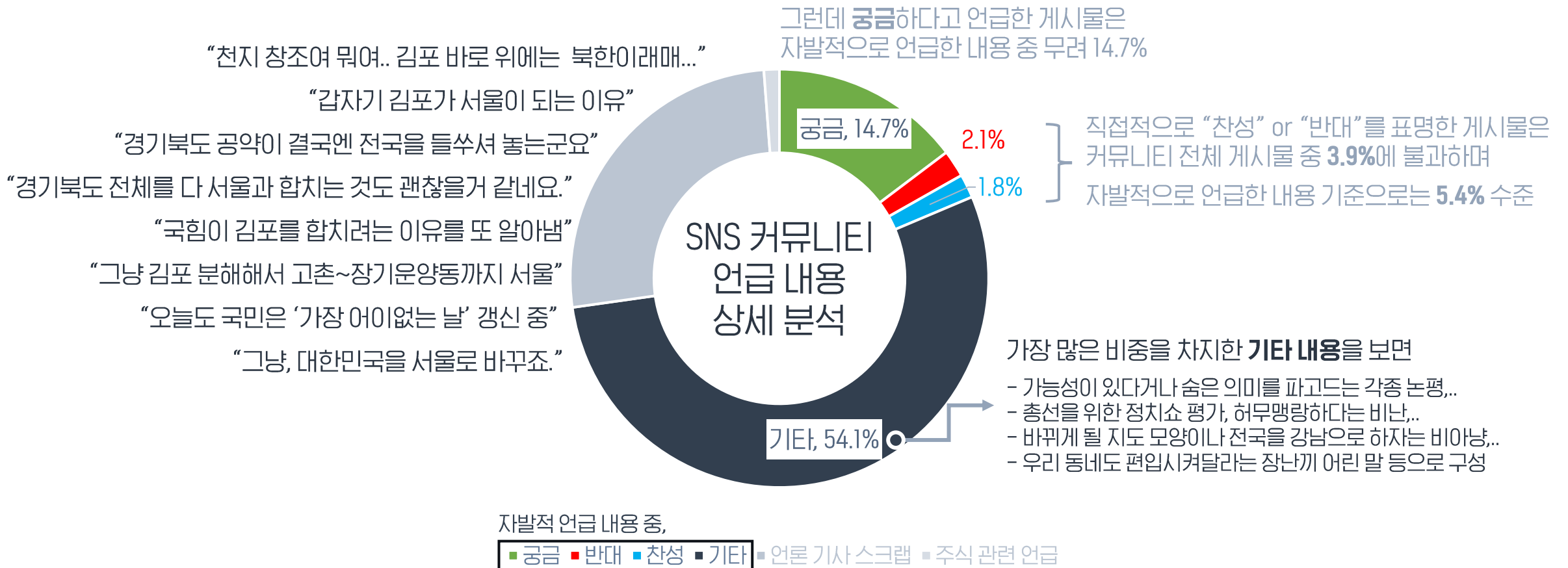
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은 14.7%

이슈 등장 배경과 서울 편입 시장점, 내년 선거용 의심 등 다양



마지막 기타 내용은 대부분, 농담 반/진담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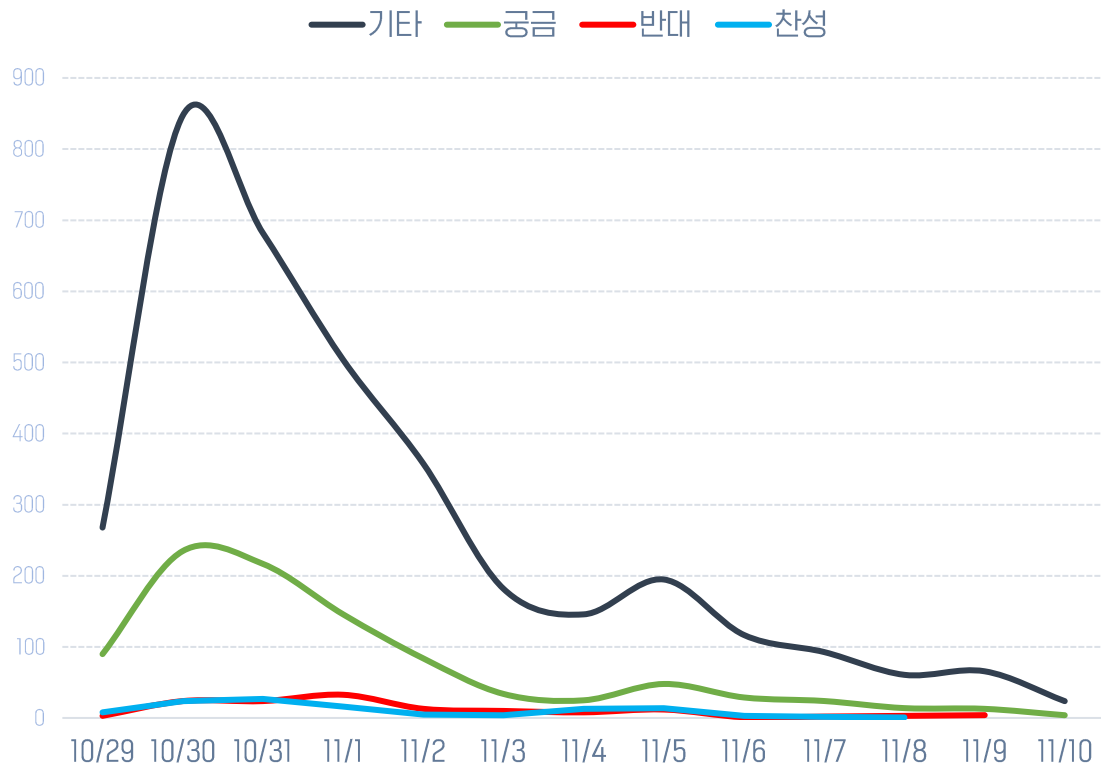
다양한 의견 및 언급 내용이 있지만 공통점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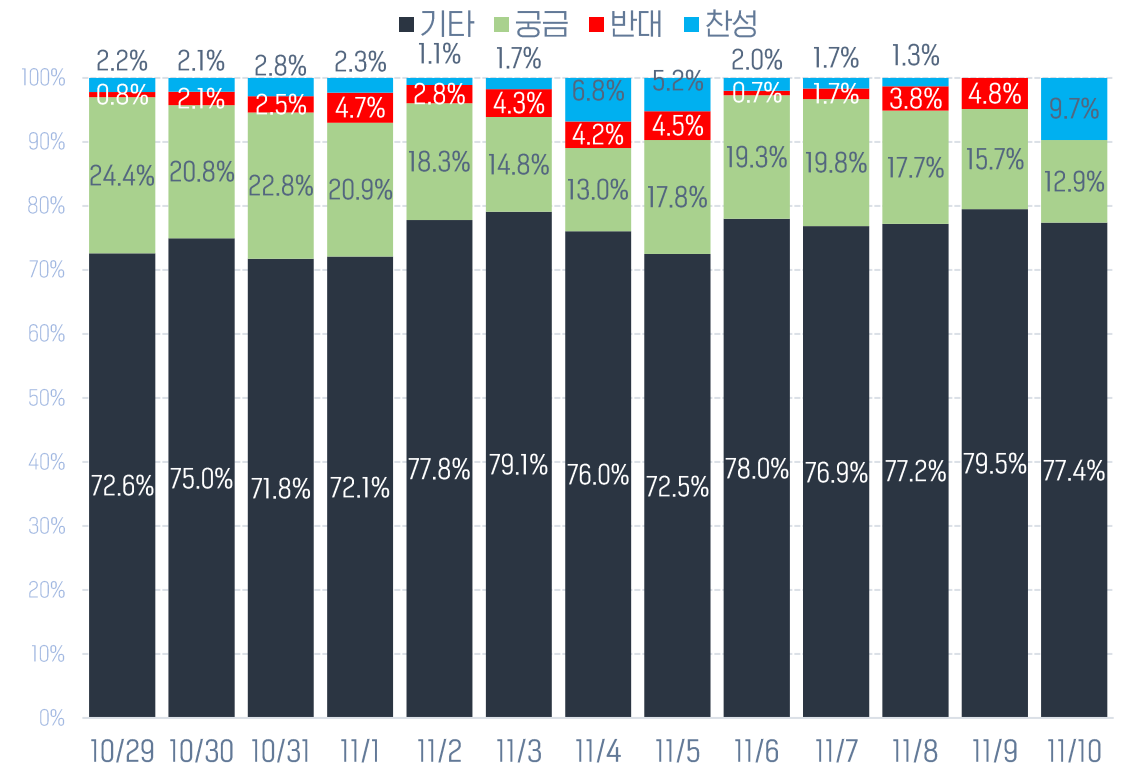
세부 언급 내용별 추이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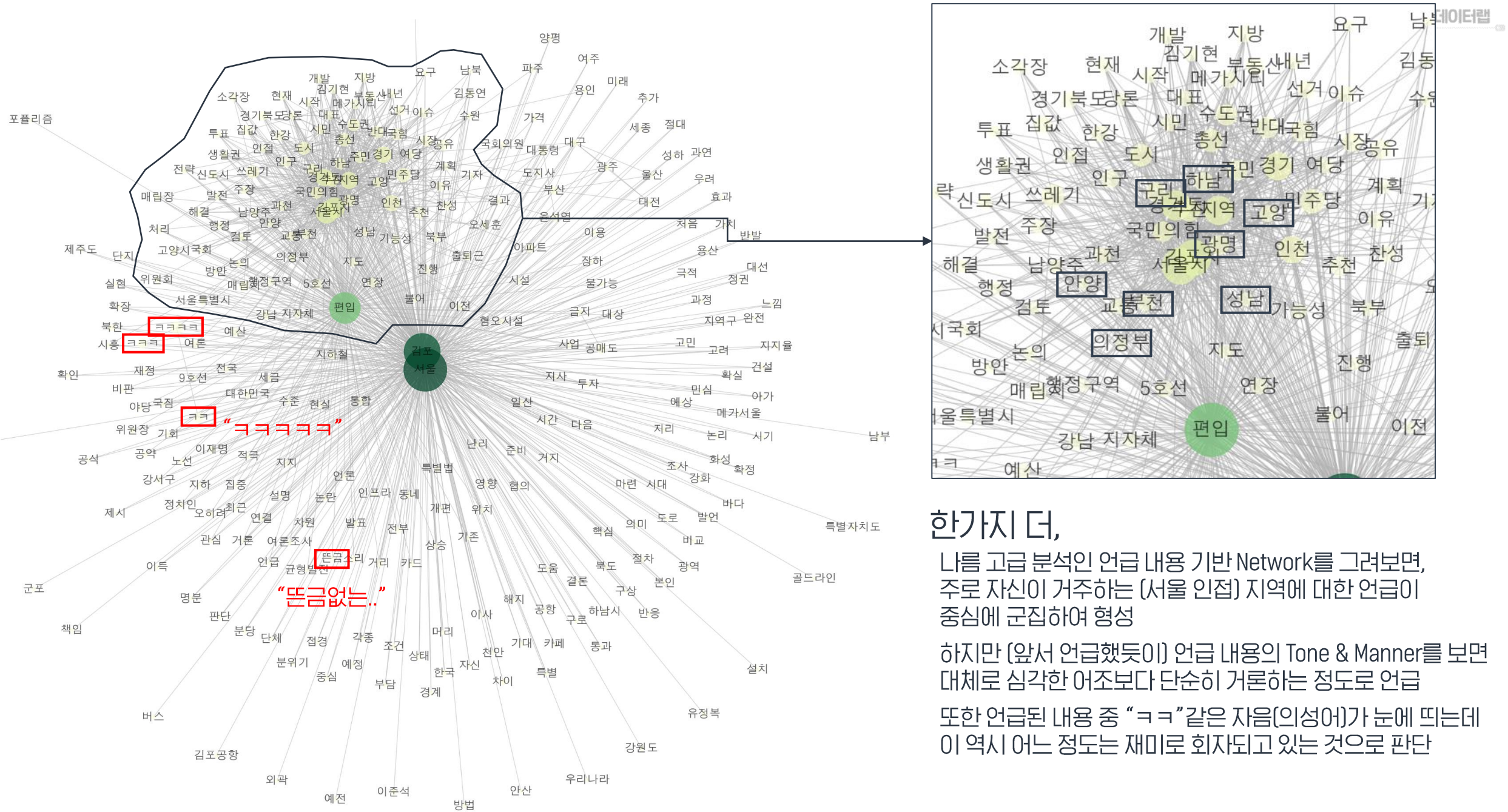
특별히 짚어 볼 내용은 없음, 단순 참고로 삼임

10.29 ~ 11.13 커뮤니티 채널 자발적 언급 단순 구분 추이 (단위:건)



10.29 ~ 11.13 커뮤니티 채널 자발적 언급 비중 구분 추이 (단위:건)





한가지 더,
 나를 고급 분석인 언급내용 기반 Network를 그려보면,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한 언급이
 중심에 군집하여 형성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언급 내용의 Tone & Manner를 보면
 대체로 심각한 어조보다 단순히 거론하는 정도로 언급
 또한 언급된 내용 중 “ㅋㅋ”같은 자음(의성어)가 눈에 띄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재미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결론 & 예고

이미 예상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김포 서울 편입 이슈는 예상보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회자되는 수준은 아니며
정치적 이슈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팽팽한 찬반 대립도 눈에 띄지 않음

하지만 이걸 정책의 실체에 대한 체감도가 아직은 낮고
더욱이 실현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서 기인하는 것일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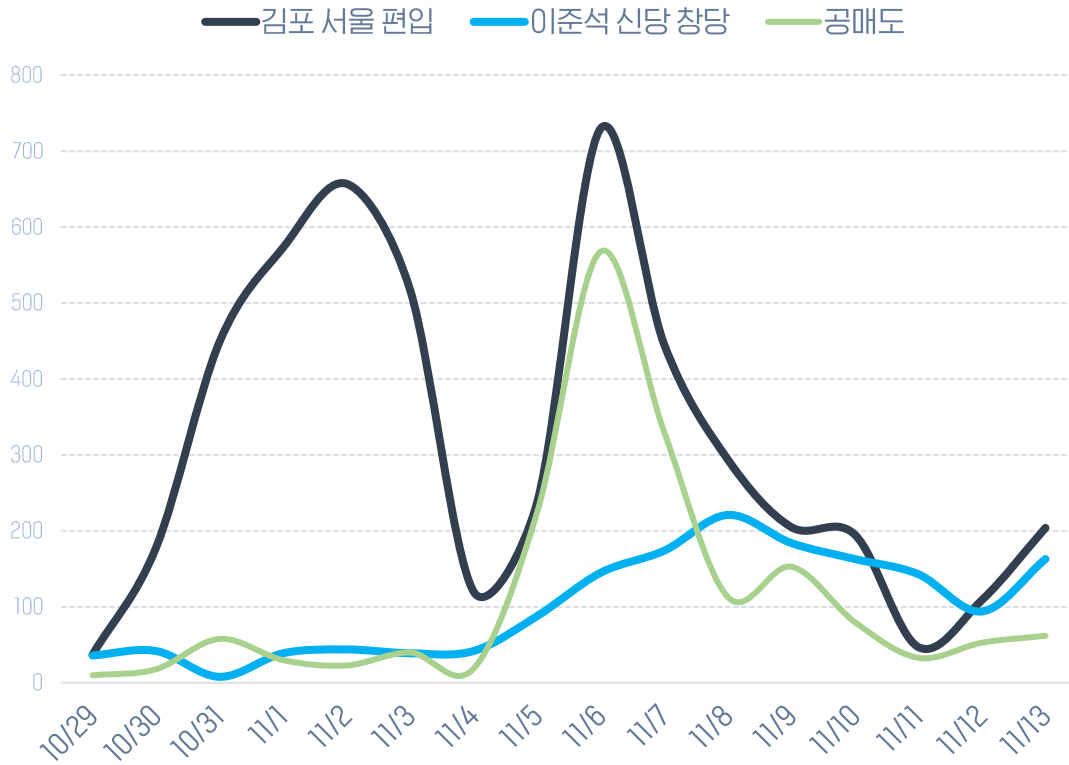
현 시점으로는 저물어가는 이슈로 판단되나
총선이 머지 않은 시점이라 예단은 어렵고

이후 추이에 따라 (필요시) 다시 점검을 해 볼 수 있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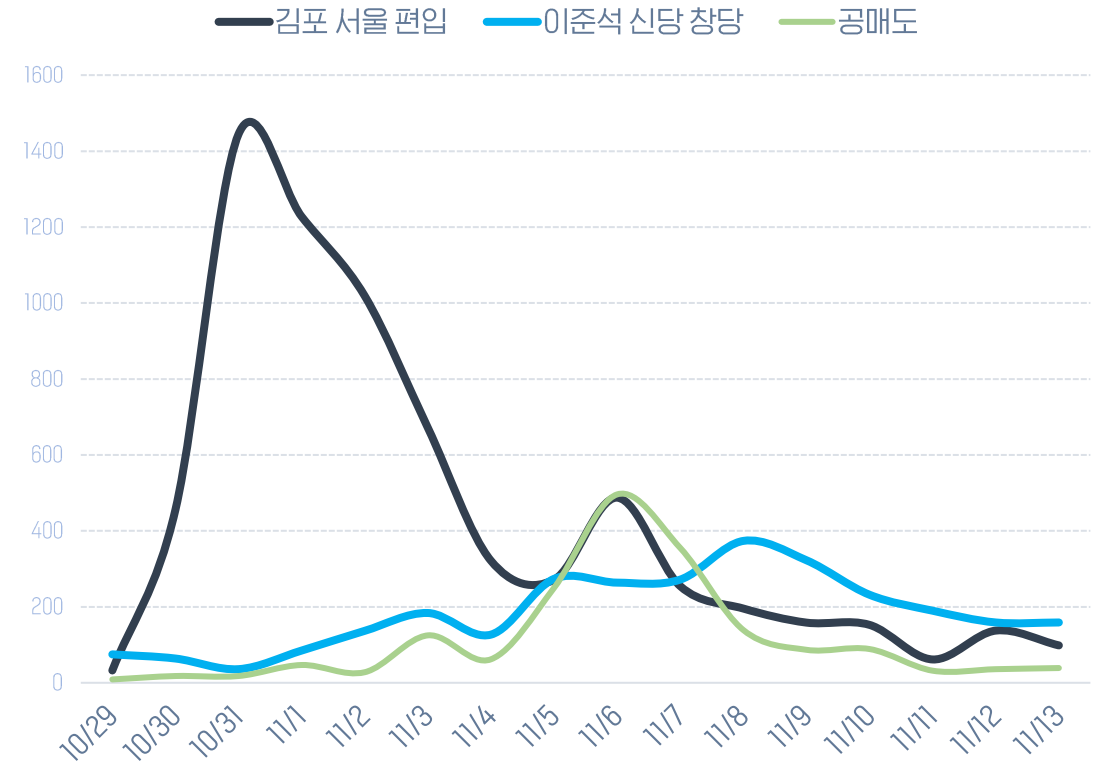
예고 : 추가로 상승 예상되는 이슈 감지

이제는 신당 창당이나 공매도 같은 이슈의 회자 가능성이 점차지는 상황,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듯

10.29 ~ 11.13 [인문기사] 주요 이슈별 정보량 추이 (단위:건)



10.29 ~ 11.13 [SNS 커뮤니티] 주요 이슈별 정보량 추이 (단위:건)



To be Continued..

E n d O f D o c u m e n t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T 02. 6177. 1871 eMAIL bigdata@emforce.co.kr